

# 2016. 4. 27.(수) 조간 언론보도 스크랩

경인일보

2016년 04월 27일 (수)  
10만 인독



## 김포 '평화누리길 게스트하우스 1호' 오픈

평화누리길 김포시 조강철책길에 게스트하우스가 문을 열었다.

경기도와 김포시는 26일 오전 11시 조강리 다목적마을회관에서 운병집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과 박동균 김포시 부시장, 한상협 경기관광공사 사업본부장, 평화누리길 홍보대사 배우 이광기씨와 서울정애학교 박원휘군을 비롯, 마을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평화누리길 게스트하우스 1호점' 개점식을 했다.

평화누리길 2코스인 조강철책길은 북한을 바로 눈앞에서 마주 보는 코스라 인기가 많았으나, 설만한 휴식공간이 없어 관광객들이 불편을 호소해 왔다.

게스트하우스 1호점은 조강리다목적마을회관에 방 2개와 세미나실, 공동 샤워실, 남녀화장실을 갖추고, 1인 기준 1만원을 지불하면 하룻밤을 묵을 수 있다. 별도로 식사비를 내면 마을 부녀회에서 직접 키운 채소로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다.

게스트하우스 운영에 필요한 침구류 등을 경기도로부터 전달받은 조강리 마을 주민들은 "지역 소득 증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포/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7.0 X 17.5 cm



경기도 평화누리길 게스트하우스 1호점 개장식에서 윤병집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 박동군 김포시 부시장, 평화누리길 홍보대사인 배우 이광기씨와 박원휘 학생 등이 커팅식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청

## 경기도 평화누리길 게스트하우스 1호점 개장

김포 월곶면 조강리 마을회관  
하루 숙박비 1인당 1만 원

경기도 평화누리길에 '게스트하우스 1호점'이 문을 열었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평화누리길 게스트하우스 1호는 김포시 월곶면 조강리 마을회관에 자리잡았다.

그동안 평화누리길은 대중교통 이용 어려움과 숙박시설 미비 등의 불편함

이 제기됐다.

게스트하우스가 마련됨에 따라 이용객 편의제공은 물론, 평화누리길이 체류형 관광지로 발돋움 할 전망이다.

게스트하우스는 김포 문수산성에서 애기봉에 이르는 평화누리길 2코스 조강 철책길(5.5km) 일원 조강리 마을회관을 활용해 만들어졌다.

방 2개, 공동 샤워실, 남·녀 화장실을 갖추고 있으며 하루 숙박비는 1인당 1만 원이다.

별도의 식사비를 내면 마을 부녀회에서 직접 만든 식사도 제공된다.

경기도는 이번 1호점을 시작으로, 김포, 파주, 연천 등 평화누리길이 소재한 시·군에 게스트하우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윤병집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앞으로 편의시설 확충 등 지속적인 보강사업을 통해 평화누리길이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품 트래킹 코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게스트하우스 개장을 축하하기 위해 윤병집 경기도 균형발전 기획실장, 박동군 김포시 부시장, 평화누리길 홍보대사인 배우 이광기 씨와 박원휘 학생, 지역 주민, 평화누리길 카페회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게스트하우스 운영에 필요한 침구류를 전달하고, 직접 현판을 설치하는 시간을 가졌다.

게스트 하우스 이용관련 문의(031-980-2480)

조윤성기자

# 김포 ‘평화누리길 게스트하우스’ 1호점 오픈

## 마을회관 활용 ... 관광객 증가로 지역 소득증대 기대 1인 기준 1만원 숙박 가능 ... 체류형 관광 촉진 전망

경기도의 ‘평화누리길 게스트하우스’ 1호점이 26일 김포시 조강리 마을회관에서 오픈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개장식에는 윤병집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 박동균 김포시 부시장, 평화누리길 홍보대사인 배우 이광기 씨와 박원휘 학생, 지역 주민, 평화누리길 카페 회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 참석자들은 게스트하우스 운영에 필요한 집구류를 전달하고 직접 현판을 설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광기씨는 “보통 트레킹 코스하면 제주도의 올레길이나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을 떠올리곤 하는데 평화누리길 역시 그에 못지않은 명품 트레킹 코스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번에 게스트하우스 개장으로 많은 분들이 평화누리길을 찾아 DMZ의 풍광은 물론 지역의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즐기길 바란다”고 소감을 말했다.

윤병집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앞으로 편의시설 확충 등 지속적인 보강사업을 통해 평화누리길이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품 트레킹 코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평화누리길 게스트하우스’는 평화누리길 관광객들이 제기했던 대중교통 이용 어려움과 숙박시설의 미비점 등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체류형 관광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마을회관이라는 지역사회 거점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소득 증대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도와시는 기대하고 있다.

김포 문수산성에서 애기봉에 이르는 평화누리길 2코스 조강 철책길(5.5km) 일



평화누리길 조강리 게스트하우스 오픈식에 윤병집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과 박동균 김포부시장, 관계자들의 기념 컷팅식을 하고 있다. /천용남기자 cyn5005@

원에 위치한 조강리 마을회관은 방 2개에 공동 샤워실, 남녀 화장실을 각각 1개씩 갖추고 있다. 1인 기준 1만원을 지불하면 하룻밤을 묵을 수 있으며 별도의 식사비를 내면 마을 부녀회에서 직접 만든 식

사를 제공한다. 향후 경기도는 이번 김포 1호점을 시작으로 파주, 연천 등 인근 시·군을 대상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의정부·김포=박광수·천용남기자 ksp@23.8 X 13.7 cm



# 평화누리길 게스트하우스 1호점 오픈

## 도, 김포 조강리 마을회관에서 현판식... 본격 운영

경기도의 평화누리길 게스트하우스 1호점이 26일 오전 김포시 조강리 마을회관에서 현판식(사진)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행사에는 운병집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 박동군 김포시 부시장, 평화누리길 홍보대사인 배우 이광기 씨와 박원휘 학생, 지역 주민, 평화누리길 카페회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평화누리길 게스트하우스는 그동안 평화누리길 관광객들이 제기했던 대중교통 이용 어려움과 숙박시설의 미비점 등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이용객들 대한 편의 제공 및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조강리 마을회관은 김포 문수



산성에서 애기봉에 이르는 평화누리길 2코스 조강 철책길(5.5km)에 위치하고 방 2개에 공동 샤워실, 남녀 화장실을 각각 갖추고 있다.

1인기준 하루 1만원이고 별도의 식사비를 내면 마을 부녀회에서 직접 만든 식사를 제공한다.

/의정부=강상준 기자

sikang15@incheonilbo.com